

특집 · 안전



술취한 학생 상대, 가장 큰 고충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

인터뷰 - 제2기숙사 김원동 경비팀장
이성민 기자 lsm1590@khu.ac.kr

#. 그저께는 새벽 4시 40분 잠에서 깼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5시 30분, 출근길에 올랐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30여 분, 매일같이 오전 6시에 학교에 도착했다. 제2기숙사로 향했다. 새벽근무를 한 사람과 교대했다.

주간업무의 시작은 빗자루를 들고 기숙사 주차장에 떨어진 담배꽂초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작은 부스에 앉아 다시 업무를 본다. 주된 일은 출입구 통제다. 카드가 없는 학생부터 외부인 출입통제 등 학생들의 민원 해결까지 기숙사의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오전 11시 점심을 먹었다. 정오까지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제2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야간 업무를 보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오늘은 야간근무다. 저녁 6시에서 자정까지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다. 하지만 자정을 넘어가면서 밀려오는 졸음과 함께 술에 잔뜩 취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행히 자정부터 새벽 1시까지엔 멘토 학생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한 시름 덜 수 있다. 그 사이에 기숙사 전체를 돌며 순찰한다. 멘토 학생이 돌아갈 무렵 다시 제2기숙사로 돌아온다. 계속되는 졸음, 그 래도 그곳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졸 수 없다. 졸음과 싸우며, 술에 취한 학생들을 하나 둘씩 밖으로 보내며, 새벽을 지새운다.

제2기숙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김원동(67) 경비팀장과 다른 경비원들의 하루다. 김 팀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현재 제2기숙사 경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망포역 주변에 사는 김 팀장은 여느 경비원들과 같이 경비 업무를 보는 동시에 경비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우리학교 제2기숙사 소속 경비원은 남자, 여자 기숙사 각각 3명, 체육부 기숙사 2명 등 총 8명이다. 경비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2기숙사 출입구 통제다. 제2기숙사는 카드키를 사용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여기서 경비원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다. 자칫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3월에서 4월까지 외부인 출입이 가장 많다”며 “다행히 요즘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실 외부인 출입보다 더 큰 고충은 술에 취한 학생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김 팀장은 이것이 “경비원들이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의 술주정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탓이다. 그래도 팀장으로서 ‘우리도 젊었을 때 학생들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다독이곤 한다”고 말했다.

오하러 김 팀장은 술에 취한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지금같이 5월, 6월이면 관창인데 12월, 1월과 같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많이 위험해진다. 저번엔 그따위 제2기숙사 앞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여 가보니 한 학생이 잠을 자며 온 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옆의 학생들에게 부축시켜서 얼른 방으로 돌려보냈기 망정이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가장 아꼈했고, 또 보람찼던 이 기억은 이후로 김 팀장이 새벽 내내 쉬지 않고 자리를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 팀장은 “학생들 보면 내 손자 같고, 또 내 학창시절도 떠오른다”며 “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다시 내일이 오고 있다. 학생들을 챙기고, 제2기숙사 주변을 청소하는 일로 김 팀장은 분주할 것이다.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5개월, ‘이용자 0명’ 학생이용률 높일 방안 찾아야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실태
이소진 기자 thwis924@khu.ac.kr

【국제】 사무처 관리팀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학생이 전무한 실정이다. ‘안심귀가 서비스’란 학교 내 출발지에 모인 이용자들을 에스원 출동대원이 지정된 학교 밖 장소까지 인솔해 주는 제도다.

안심귀가 서비스는 평일 오후 10시와 다음날 오전 0시에 멀티미디어관 1층 로비에서 각각 출발해 서천동SK아파트 입구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11시에 중앙도서관에서 출발해 LH아파트로 가는 경로도 시행 중이다. 별도의 사전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출발시간에 맞춰 출발지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출동대원에게 가면된다.

사무처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관리팀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한 ‘멀티미디어관 뒷길’과 ‘도서관 뒤 교내 산책로’ 쪽으로 늦은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단과대학 전 부서에 관련내용에 대한 홍보 메일을 보냈는데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지난 11일 오전 0시에 멀티미디어관 로비에서 서천동 SK

아파트로 가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해봤다. 오후 11시 45분, 에스원 박병우 출동대원과 이상우 출동대원이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들고 이용자를 기다렸다. 비교적 늦게까지 학생들이 캠퍼스에 머무르는 축제 첫날이었지만 역시나 이용자는 없었다. 이 요원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용하는 학생이 지금까지 한명도 없었다”며 “학생이 없어서 팻말만 들고 있다가 그냥 사무실로 복귀하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자가 이용한 코스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없었다. 또한 중간에 있는 굴다리는 측면에서 안이 보이지 않아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목적지인 SK아파트 근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이 있다. 이 원룸촌도 골목이 좁고 인적이 드물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워 보였다.

안심귀가서비스를 마치고 복귀하던 박병우 요원은 “만일 학생들이 바로 옆에서 동행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정계장 역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나면 피드백을 받아, 경로나 시간을 다양화하거나 횡수를 늘릴 계획이 있다”며 “현재는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 피드백도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홍보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심귀가서비스 경로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를 무한합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던 포스코가 글로벌 경쟁력 5년 연속 세계 1위의 철강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끝없는 도전정신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날의 업적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POSCO the Great를 향해 끝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posco